

# '한국 인삼종주국' 국제 공인 받았다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한국서 제안한 잔류농약 허용치  
베이징서 국제기준으로 채택  
해외수출 걸림돌 사라져

한국이 제안한 인삼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의 지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식품약품안전청은 12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지난 4~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의한 살충제 '디페노코나졸' 잔류 허용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1994년 출범한 유엔 산하기관으로 2001년에는 일본이 내세운 기무치 대신 김치를 공식 용어로 인정, 한국을 김치 종주국으로 공인했던 국제기구다. 당시 김치의 코덱

스 규격이 마련되면서 우리나라가 김치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이번 결정으로 인삼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식품기준과 업무협력 연구관을 "그동안 중국은 지린(吉林)성 주변을 내세우며 자국이 인삼 종주국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결정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일정한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간 인삼도 명칭 때문에 오해가 많았다. 고려인삼(파나스 진생)은 국제적으로는 진생(ginseng)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영문명을 인삼의 일본어 발음으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생은 19세기 러시아의 식물학자 메이러 박

사가 붙인 고려인삼의 학명(Panax ginseng)에서 유래했다.

인삼 잔류농약에 대한 코덱스 기준이 없는 것은 인삼을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하는 데 큰 장애가 됐다. 식약청 관기성 화학물질과장은 "디페노코나졸은 인삼 재배 때 사용하는 농약인데 이에 대한 코덱스 기준이 없고 수입국에서도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인) 불검출이 기준이 된다"며 "이는 인삼 수출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덱스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인삼 수입국가가 별도의 자국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한 인삼의 디페노코나졸 잔류량은 우리나라 허용 기준(0.5ppm 이하)이 표시이 된다. 식약청 박선희 식품기준과장은 "수출장벽이 해소돼 지난해 1200억원 수준인 인삼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tkpark@joongang.co.kr

## 유영구 KBO 총재 횡령 혐의 조사

유씨 "회계 처리 실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영구(65)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12일 오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유 총재가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계열사인 명지건설의 빚 1500억원에 대

해 개인 지급보증을 선 뒤 명지학원 소유 빌딩을 담보로 자신의 지급보증을 해소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또 명지학원이 명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교비 등 공금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700억원대 공사를 맡아주는 등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를



유영구 총재

통해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다"고 말했다. 유 총재는 검찰 조사에서 "회계 처리상의 실수였을 뿐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명지건설에 부당한 지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iframp@joongang.co.kr



펭귄은 온난화가 싫대요 지구온난화로 파괴되고 있는 남극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호 캠페인이 12일 서울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렸다. 어린이들이 남극의 상징인 '펭귄을 보호하자'는 팻말을 들고 있다.

## 브리핑

**권혁 회장 4101억 세금 탈루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국제성이 해운업체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해 음에 따라 사건을 금융조사2부2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권 회장과 시도상선은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 계좌로 분산 관리하면서 약 410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징역 10월**  
서울고법 형사2부는 12일 김중희 전 KB한마음 대표를 사임하게 하는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1심(징역 1년6월)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에 1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스뮤직 창업 박성훈 대표 소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3부는 12일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글로웍스 박성훈(44)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박 대표는 2009년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허위정보를 퍼뜨려 주가조작으로 5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0년 온라인 음악사이트 박스뮤직을 창업해 벤처 성공 신화를 이룬 인물이다.

## 신임 대학총장에게 듣는다 - 한양대 임덕호 총장

# "80개 모든 학과 서로 경쟁시킬 것"

임덕호(67) 한양대 총장은 80개 모든 학과를 평가해 교수 연봉과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정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24개 단과대학에게 예산 운영과 강사-겸임교수 인사권을 쥐 분권화를 통한 책임경영 체제를 만들겠다"며 "학장들도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임 총장은 12일 본지와 첫 인터뷰에서 "교육, 연구, 국제화, 발전기금 유치, 취업률 등 다섯 가지 지표로 학과를 평가할 것"이라며 "잘 가르치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2시간 가까운 인터뷰 중 자료도 보지 않고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학과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이 신선하다. 교수들이 스트레스를 받겠다.  
" (웃음) 총장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 함께 학생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자는 뜻이다. 교수 개인도 중요하지만 학과가 같이 발전해야 대학 경쟁력이 커진다. 학과 평가에서 교육은 학생 강의 평가 등 교수 평가 기준을 쓰면 된다. 연구는 경쟁 대학 학과의 성과와 비교하겠다. 결과를 상·중·하로 나눠 학내에 알리고 임금이 반영할 생각이다. 임금인상률이 3%라면 그중 1%는 학과 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학과와 전공 특성이 달라 평가 공정성이 중요하다.  
"물론이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폭을 넓혀겠다. 특히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는 커리큘럼도, 취업률도 다른데 그런 특징을 반영할 생각이다."

-단과대학도 책임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원은 학과 추천을 받아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 선발하게 된다. 교원 인건비를 단과대 자율예산으로 넘겨 절감하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난방비·전기료 등 관리 운영비도 단과대에 주고 교수·직원·학생이 자기 집처럼 아껴 쓰며 다른 곳에 쓸 재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대학 발전에는 돈이 필요하다. 취임식에서 재정 확충이 과제라고 했다.  
"대학이 먼저 경영 효율화를 해야 외부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기업도 무조건 돈을 주겠다. 기업에도 좋고 국가 경제에도 좋은 공동 프로그램에

## 경쟁력 강화 방안은

교육·연구 성과 상·중·하로 평가  
교수 연봉, 정원 배분에 반영하겠다

## 재정확충 어떻게

삼성과 협력해 만든 SW학과처럼  
대학·기업 협업 과정 계속 개발

-그래도 색갈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  
"공대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 한양대 공대는 서울대보다 먼저 만든 학과가 여럿이다. 원자력공학과는 1958년 우리 대학에 가장 먼저 생겼다. 공학과 인문사회학과의 학문 컨버전스(융합)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 도약할 것이다. '사람의 실천'이라는 교육이념을 각인시키기 위해 동문까지 참여하는 전국적인 사회봉사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대학 발전에는 돈이 필요하다. 취임식에서 재정 확충이 과제라고 했다.  
"대학이 먼저 경영 효율화를 해야 외부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기업도 무조건 돈을 주겠다. 기업에도 좋고 국가 경제에도 좋은 공동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삼성전자와 협력한 소프트웨어학과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는다."

-뽑는 경쟁보다 잘 가르치는 경쟁이 중요하다. '베스트 티처상'을 다섯 번이나 받았는데.  
"학생들이 뽑아 준 소중한 상이다. 열정이 비결이다. 가르치는 게 재밌어서 대학원생 3명을 놓고도 100명에게 하는 목소리로 강의한다. 총장이 됐지만 e-메일은 직접 챙긴다. 학생 상담 메일에는 한 줄이라도 답한다. 답변 하나가 인생을 바랄 수 있어서다. 소통은 대학 운영과 교육의 기본이다."

-등록금 논란이 거센데 한양대도 올해 2.9% 올렸다.  
"등록금 수준으로 보면 서울 20개 대학 중 10~14위다. 액수는 빼고 몇% 올렸는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대학은 지금도 이공계 중심이다. 이공계는 인문사회계에 비해 돈이 더 들지만 등록금은 30%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립대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줘야 한다."

-교직원엔 '신이 감춰 놓은 직장'이라는 말이 있다.  
"체육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다. 하지만 안정을 찾았으면 경주도 없다. 그래서 대학이나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신입 직원은 일정 기간 현장인 단과대에서 근무하게 하겠다. 여러 직군을 순환하고 경력이 쌓이면 직군 내에서도 일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전문화하겠다."

만남 사람=양영우 정책사회 데스크  
정려=김성택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sunt@joongang.co.kr



◆임덕호 총장=1954년 광주 출생. 광주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라이스대 대학원에서 도시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88년부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처장·교무처장·경상대학장·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장,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교 때 유도를 할 정도로 운동을 즐기며, 말솜씨가 뛰어나 방송 토론프로그램 진행 경험도 있다.

HYUNDAI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섹시한게 더 섹시해졌다

# 2012 투싼ix 탄생

주차조향 보조시스템 | 전복감지 센서 | 오토크루즈 컨트롤 | 열선 스티어링 휠

Sexy Utility Vehicle  
**Tucson ix**

투싼ix와 함께 떠나는 유럽일주

2011년 4월 11일~5월 31일까지 투싼 ix를 출고하신 분 중 40분을 선정해 유럽 6박 7일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이 포함된 여행 패키지상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yundai.com 참조

구입 문의전화 1588-0550 휴대전화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및 긴급서비스원 원콜서비스 080-600-6000  
정비관련 요원번호 및 등급  
2.0 e-VGT 다형 2WD: 17.8km/l | CO<sub>2</sub> 배출량: 155g/km | 배기량: 1996cc | 공차중량: 1575kg | 수동변속기  
2.0 VVT 기술탐 2WD: 12.1km/l | CO<sub>2</sub> 배출량: 194g/km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410kg | 자동변속기  
2.0 e-VGT 다형 2WD: 15.8km/l | CO<sub>2</sub> 배출량: 172g/km | 배기량: 1996cc | 공차중량: 1550kg | 자동변속기  
2.0 e-VGT 다형 4WD: 15.9km/l | CO<sub>2</sub> 배출량: 170g/km | 배기량: 1996cc | 공차중량: 1625kg | 자동변속기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속감,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안전운행차: 지점(대리점)의 카운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비싼 거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43번 제1437호 43번